

# 제3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사업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배경하의 한중 산업협력” 을 위한 정책토론회, 해외출장보고서

2016년 8월 31일  
국제산업협력실 강지연 연구원

### 1. 출장 개요

(1) 출 장 자: 원장실 유병규 원장

주력산업연구실 조철 선임연구위원  
지역발전연구센터 김동수 연구위원  
국제산업협력실 강지연 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유아람 연구보조원  
북경지원 이문형 선임연구위원  
북경지원 임미란 행정원

(2) 출장지역: 중국 란저우

(3) 출장기간: 유병규, 유아람 (2016.8.4. ~ 8.6. / 2박 3일)  
이문형, 김동수 (2016.8.3. ~ 8.6. / 3박 4일)  
조철 (2016.8.4. ~ 8.7. / 3박 4일)  
강지연, 임미란 (2016.8.3. ~ 8.7. / 4박 5일)

(4) 출장목적

- 산업연구원은 제3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간쑤성 란저우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배경 하의 한중 산업협력’ 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 KIET와 중국 란저우신구, 간쑤성사회과학원이 공동 주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간쑤성정부가 주최하여 한중 양국간 토론회를 진행

(5) 출장 일정

출장지	일정	세부 일정
란저우 (蘭州)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연구원 선발팀 이동</li> <li>- 강지연, 김동수: 인천→베이징→란저우 이동</li> <li>- 이문형, 임미란: 베이징→란저우 이동</li> <li>○ 회의장 등 토론회 개최 사항 점검</li> </ul>

출장지	일정	세부 일정
8.3(수)~ 7(일) (4박 5일)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이동</li> <li>- 유병규, 조철, 유아람 이동</li> <li>- 인천 ⇒ 베이징 (OZ331, T3)</li> <li>- 베이징 ⇒ 란저우 (CA1271, T3)</li> <li>○ 란저우신구 보세구 지역 산업시찰</li> </ul>
	8.4	<b>한중 지식인 네트워크 포럼 (라운드테이블)</b>
	8.5	<b>란저우 토론회</b> <b>‘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배경 하의</b> <b>한중 산업협력’</b>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S(兰石)그룹 산업시찰</li> <li>○ 참석자 한국으로 이동</li> <li>- 유병규, 이문형, 김동수, 유아람 이동</li> <li>- 란저우 ⇒ 베이징 (CA1274, T3)</li> <li>- 베이징 ⇒ 인천 (OZ336, T3)</li> <li>○ 산업연구원 후발팀 마무리 작업</li> <li>○ 산업연구원 후발팀 베이징 이동</li> </ul>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지연, 조철, 임미란: 란저우→베이징</li> <li>- 강지연, 조철은 동북아 협동과제 수행을 위해 8.8일 중국전문가와 면담이 있는 관계로 귀국을 연기</li> <li>- 관련문서: 국제산업협력실-1423</li> </ul>	

## 2. 주요 내용

### □ 토론회 목적

-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하나.창조.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가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 ‘13.10.18)
  - 시진핑 주석과 중국정부도 2014년 ‘일대일로’를 국책사업으로 정식 확정하였으며, 간쑤성(甘肅省)이 일대일로의 핵심지역으로 대두
  - 특히 리커창 총리의 2015년 10월 방한시 양국정상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양국은 상호간의 외교정책 연계를 통해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인프라와 산업단지 건설과 자원개발에서 협력 강화 필요성을 MOU에서 강조
- 최근 한국과 중국 간 한중 FTA 협정문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한중 경제협력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
  - 한중 간 경제협력이 제조협력에서 시장공유로 심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서북부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중국 서부지역에서 한중 지식인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 양국의 지식인이 교류하면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
  - 이미 섬서성 시안, 쓰촨성 청두 등에서 1, 2차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제3차 사업을 간쑤성 란저우에서 진행할 계획
- 간쑤성은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 지역이자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 접목지역
  - 간쑤성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 간쑤성 성도인 란저우시(蘭州市)는 중국 각지에서 온 기차와 자동차가 중앙아시아를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임.
  - 란저우시는 중앙아시아에서 송유관을 통해 운송된 석유와 가스를 중국 전역으로 보내는 중요 도시임.
  - 또한 중국의 생산거점이 동부에서 중서부로 이전되면서 서부대개발, 특히 서북부지역의 핵심 거점인 간쑤성(甘肅省) 역시 한국과의 산업 및 기술협력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음.
- 따라서 금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간쑤성의 교통·물류, 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 지역 간 산업협력 확대에 일조하고자 함.
  - 한국에서는 산업 전문 정부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하여 교통연구원 등이 참여
  - 중국에서는 간쑤성의 최고 싱크탱크인 간쑤성 사회과학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토론회 개요

- 정책토론회와 기업인 포럼을 결합한 형태
- 일시: 2016년 8월 4일(목) ~ 6일(토)
- 장소: 중국 간쑤성 란저우시 Gansu Ningwozhuang Hotel(甘肃宁卧庄宾馆)
-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쑤성정부
- 주관: (韓)산업연구원, (中)간쑤사회과학원, 란저우신구
- 후원: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교통연구원, 코트라, 간쑤성발개위, 간쑤성교통청, 간쑤성상무청, 란저우대학 관리학원
- 언어: 한중 동시통역
- 토론회 프로그램

8월 5일(금)	주요내용	
08:30~09:00	등 록	
<b>개회식</b> 09:00~10:00 (60')	<b>(개회식) 사 회: 이문형</b> 북경지원장	
	개 회 사	<b>유병규</b> 산업연구원 원장
	환 영 사	<b>리루이(李睿)</b> 란저우신구 주임
	축 사	<b>김세원</b> 경제·인문사회연구회 前이사장
	기조연설 (25')	일대일로와 한중 협력 <b>이강국</b> 주시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산업연구원-간쑤성사회과학원 MOU 체결(5')	
	주요 참석 인사 기념사진촬영(5')	
<b>제1세션</b> 10:00~11:40 (100')	<b>(제1세션)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접목 - 교통과 물류를 중심으로</b> 사 회: <b>예충열</b>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경영본부장)	
	발 표 (50')	일대일로 배경 하의 간쑤성 종합교통 및 물류시스템 구축 <b>차오텐민(曹天民)</b> 간쑤성발개위 부주임
		중국 서북부지역 교통 및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한 한중협력방안 <b>서종원</b>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30')	(韓) <b>채중훈</b> 대한항공 중국 본부장 <b>나희승</b>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계연구팀장
		(中) <b>차이원하오(蔡文浩)</b> 텐쉐이(天水)사범대학원장 <b>뤄저(罗哲)</b> 간쑤성사회과학원 지역경제연구소장
질의 응답(20')		
12:00~13:30	오 찬	

8월 5일(금)	주요내용	
제2세션 13:30~15:10 (100')	<b>(제2세션) 중국 서북부지역 산업발전과 한중 산업 협력방안</b> 사회: 마팅쉬(马廷旭) 간쑤성사회과학원 부원장	
	발 표 (50')	신창타이 하의 새로운 한중 산업협력 발전방향 <b>장안인(姜安印)</b> 란저우대학경제학원 부원장
		한중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과 산업협력 <b>조 철</b>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
	토 론 (30')	(韓) <b>김현철</b> 주중국대한국대사관 상무과장 <b>최용민</b>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中) <b>차이원하오(蔡文浩)</b> 텐쉐이(天水)사범대학원장 <b>장젠진(张建君)</b> 간쑤성당교 경제학연구부 주임
질의 응답(20')		
15:10~15:30	휴 식	
제3세션 15:30~17:10 (100')	<b>(제3세션) 한중 기업인 포럼</b> 사회: 란저우신구	
	발 표 (50')	란저우신구소개 <b>니우상동(牛向东)</b> 란저우시 부시장, 란저우신구 부주임
		란저우신구 중점 기업 소개 <b>다이자롄(戴家君)</b> 란저우커텐(科天)그룹 총경리
		한중일대일로기업협회 소개 <b>홍성표</b> 한중일대일로기업협회 회장 한국 기업 소개 <b>최경균</b> 한중일대일로기업협회 부회장
(50')	한중 기업 교류(네트워크)	
17:10~17:30	폐 회	총 평

###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



<중국 간쑤성사회과학원과 산업연구원의 MOU 체결상황>



<세미나 개최상황>



## □ 발표 및 토론 내용

### 1) 1세션 :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접목 - 교통과 물류를 중심으로

#### ○ 발표 1 : 일대일로 배경 하의 간쑤성 종합교통 및 물류시스템 구축

(중국 간쑤성발개위 차오톈민 부주임)

- 13·5계획 기간 중 간쑤성이 상호연계형인 종합 운송통로를 구축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형성하여 주요 국제물류허브를 구축할 계획
- 간쑤성은 국제 물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물류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고자 함을 강조

#### ○ 발표 2 : 중국 서북부지역 교통 및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한 한중협력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서종원 부연구위원)

- 유라시아 국제 운송로 구축을 통해 국가 간 교역 확대와 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전되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중국의 일대일로 등 국가별 전략이 구축됨.
- 중국 서부지역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기술력이 결합하여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란저우, 청두, 충칭, 시안 등에 한국 종합물류기업 진출, 중국의 유럽행 국제화물열차에 한국 기업이 참여, 서부지역 교통물류제도 분야 진입장벽을 해소, 한국-중국 서부지역 육상 교통로 구축 등의 양국 간 협력 전개 도모
- 한중 교통물류협력의 일환으로 한중 열차 페리 운영, 한중 해저터널 구축, AIIB를 활용한 서울-평양-단둥-베이징 국제운송로 연계 등 추진 가능
- 한중의 철도 물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철도플랫폼을 구축하고 통관 및 환적을 간편화해야 한다고 역설

#### ○ 토론 1 : 차이원하오 텐수이사범대학원장

- 시장경제의 본질은 ‘교환’임. 중국 개혁개방으로 교역이 증가하면서 육로 무역이 화두가 됨. 최근 서부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는데 간쑤의 경우 화물 이동 시간과 비용이 문제점으로 작용함. 육로 운송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함
- 란저우신구는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음. 북경이나 한국과 거리가 멀고 산업밀집도가 낮음. 하천이 없어 수로 이용통로가 부재하기 때문에 물류비용 높고 인구밀도가 낮아 건설비용도 높음. 또한 투자 회수기간도 길

- 기업이 아닌 정부가 물류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기술 혁신을 통해 물류 효율도 높아짐
- 스마트제조나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과 란저우신구의 협력이 전개될 수 있음
- 보세물류단지나 보세구는 투자기업이 가공산업이나 장비제조산업에 종사할 경우 관세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임
- 첨단기술 분야는 물류비용이 낮으므로 이 분야에서도 한국과 란저우신구가 협력해야 함

### ○ 토론 2 : 채중훈 대한항공 중국 본부장

- 일대일로는 실크로드의 현대화 버전으로,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임. 물류 중심의 실크로드 전략에서 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이 아쉬움. 허브 구축, 창고 건설 등은 모두 ‘사람의 힘’ 이 필요한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란저우를 오가는 교통수단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함
- 쓰촨, 칭하이, 간쑤성은 중국 국토 면적의 50%를 차지하나 이 3성에서 국제선을 운항하는 공항은 15개(중국 전체 국제선 운항 공항 69개)에 불과함. 일대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3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
- 한국과 란저우는 기존의 풍부한 한중 항공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함. 한국은 중국 35개 도시와 1,100편의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고 그중 70%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지난 30년에 걸친 성과이고 란저우는 이와 같은 긴 시간을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항 개방 노력이 필요함
- 결국 란저우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항공 자유화’ 를 추진하여 간쑤, 칭하이, 쓰촨에 두루 파급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 ○ 토론 3: 뤼저 간쑤성사회과학원 지역경제연구소장

- 뉴노멀 시대에 간쑤성의 교통 물류 구축 방안에 대해 네 가지 접근법 제시함
  - 응집력: 공간적 거리 해소 위한 교통 응집력 필요
  - 리더십: 정책 실시
  - 파급력: 대외로 향한 파급력
  - 수용력: 늘어나는 여객/화물 운송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



- 서부대개발에 간쑤성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 특히 에너지 수출 면에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존의 수동적 수출을 능동적 수출로 변화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4대 전략이 필요함
- 중점적 개발
- 허브경제 발전
- 네트워크 강화
- 서비스 개선
- 한국과 간쑤성의 협력은 위의 4대 전략에서 이뤄져야 하고 란저우신구는 한국과 간쑤성 교류의 좋은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음

○ 토론 4: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계연구팀장

-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운송에 항공물류도 중요함
- 지역 개발의 2대 핵심은 거점 개발과 네트워크 개발임
- 트랜짓화물(통과화물) 할인운임제도 도입을 제안함
-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동북아와 서부 및 중앙아시아를 중시함. 한국은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확대에 노력했으나 교역 비율은 전체의 1%에 불과함. 중앙아시아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러시아와의 교역이 감소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교역을 확대하고 중국은 간쑤를 거점으로 키워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음
- GTI(Great Tumen Initiative)와 같이 GGI(Great Gansu Initiative)라는 국제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국과 간쑤성이 주도할 것을 제안

2) 2세션 : 중국 서북부지역 산업발전과 한중 산업 협력방안

○ 발표 3: 신창타이 하의 새로운 한중 산업협력 발전방안(중국 장안인 란저우대학경제학원 부원장)

- 뉴노멀 시대에서 한중 양국은 신에너지, 바이오제약 및 헬스케어, 농산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한중 FTA가 체결된 현재, 제조업 협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협력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큼

○ 발표 4: 한중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과 산업협력(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

- 한중간 분업관계와 무역관계가 심화된 만큼, 수평적인 산업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
- 우선 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및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한중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 특히 중국 서북부지역의 중심지역인 간쑤성을 한국과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산업진출 기반으로 삼아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서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토론 5: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 현재 중국이 당면한 과제는 서부대개발을 통해 대국에서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임. ‘일대일로’ 야말로 중국이 강국으로 거듭나는 주춧돌임
- 중국에는 제조업과 IT를 접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대규모 소비시장이 갖춰져 있음. 또한 정부 차원에서 서부대개발을 추진 중임
- 서부개발이라는 개념은 수십 년 전에 등장하였지만 연안지역 개발이 약 10년 소요된 것에 비하면 매우 더디게 추진됨
- 간쑤에는 구리 자원이 풍부하데 수출 관세가 10%에 이름. 이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소재를 산업화하고 관세를 인하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위해 중국은 FTA를 통해 관세를 낮추고 한국은 중국의 대규모 소비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함

○ 토론 6 : 차이원하오 텐수이사범대학원장

\* 비고: 2세션에는 가오신차이 란저우대학 부총장이 토론을 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차이원하오 원장이 토론으로 재참석함.

- 산업협력과 국제무역은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임. 산업협력은 내부 협력과 내부 분업으로 나눌 수 있음
- 간쑤 지역은 과일, 니켈 등 광산자원, 알루미늄 등 1차 부품을 풍부함. 알루미늄 자원의 경우 16위안/kg이지만 자동차 부품으로 쓰이면 500위안/0.3kg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받음
- 첫째, 원가 면에서 살펴보면 간쑤는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아 농업분야 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지역임. 이는 동부 연해지역이 인구밀도가 높아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물류비용보다 토지비용이 더 높은 것과 상반됨

- 둘째, 문화 융합성을 살펴보면 간쑤는 소수민족이 많은 다민족 융합지역이고 할랄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음
- 한국은 간쑤를 통해야만 교역 국가를 확대할 수 있음
- 한국과 중국에게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함
  - 기술혁신: 기술생명주기 점차 단축되고 있음(예: 스마트폰 2, 3년)
  - 스마트화: 한국의 혁신역량은 아직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나 중국 서부지역보다 뛰어남

#### ○ 토론 7 : 김현철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상무과장

- 지난 12월 한중 FTA 체결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란저우신구에 한국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면 한중산업협력단지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임
- 정부에서는 한중산업펀드를 조성하여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간쑤성 우호주간행사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원함

#### ○ 토론 8 : 장첸권 간쑤성당교 경제학연구부 주임

- 자유무역은 경제발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임
- 시간의 측면에서 육로, 철도, 항로는 일대일로 추진의 핵심 ‘날개’ 임. 운송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함
- 공간의 측면에서 간쑤는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음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말이 있듯 인심(人心)을 활용해야 함. 중앙아시아에는 20만 명의 한국 교포가 거주 중임. 서아시아와 유럽 진출에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전략적 통로를 이용해 비교우위를 발휘해야 함
- 간쑤의 1인당 GDP는 한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그러나 한국의 철강, 자동차, 화학

등의 분야는 기존의 동남아에서 간쑤로 이전을 고려해볼만 함

### 3) 3세션 : 한중 기업인 포럼

○ 제3세션은 학술적 논의가 아닌 기업인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장을 마련

- 기업인 포럼에는 한중 기업인이 각각 30~40명이 참석
- 니우상둥(牛向东) 란저우신구 부주임 겸 란저우시 부시장과 홍성표 한중일대일로기업협회 협회장이 각각 란저우신구 및 협회, 주요 기업 등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
- 뿐만 아니라 행사 현장에서 한중 대표 기업들이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

## 3. 토론회 관련 기사

### 1) 한국 언론

#### 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中일대일로' 교통·물류연계 모색

기사입력 2016-08-06 14: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6/0200000000AKR20160806038600003.HTML?input=1195m>)

산업연구원, 中간쑤성서 국제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5일 중국 간쑤성(甘肅省) 란저우(蘭州)시에서 국제정책토론회를 열고 중국 간쑤성 정부, 간쑤성 사회과학원 등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추진 중인 신(新) 실크로드 전략이다.

리웨이 란저우 신구(新區) 당공위원회 서기는 축사에서 “란저우 신구는 서북지역 산업 중심이고 교통 허브로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양 지역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개최사에서 “유럽행 철도의 중심지인 간쑤성 란저우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접목-교통과 물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1세션과 ‘중국 서북부지역 산업발전과 한중 산업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세션에서 중국 란저우대학 경제학원의 장인인 부원장은 “뉴노멀시대에서 한·중 양국은 신에너지, 바이오제약·헬스케어, 농산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업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신성장산업에서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 ② 산업연구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中일대일로’ 정책 논의

기사입력 2016-08-06 14:15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06010003111>)

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산업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5일 중국 간쑤성(甘肅省) 란저우(蘭州)시에서 국제정책토론회를 열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중국 간쑤성 정부, 간쑤성 사회과학원 등도 함께 했다. 토론회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접목-교통과 물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1세션과 ‘중국 서북부지역 산업발전과 한중 산업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추진 중인 신(新) 실크로드 전략이다.

리웨이 란저우 신구(新區) 당공위원회 서기는 축사에서 “란저우 신구는 서북지역 산업 중심이고 교통 허브로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양 지역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유럽행 철도의 중심지인 간쑤성 란저우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ucas201@asiatoday.co.kr

### ③ 산업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中일대일로 ‘교통 · 물류연계 모색’

기사입력 2016-08-06 17:4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6000107>)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 산업연구원은 5일 중국 간쑤성(甘肅省) 란저우(蘭州)시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연계방안을 논의하는 국제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간쑤성 정부와 간쑤성 사회과학원이 참여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구축하는 방안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추진 중인 신(新) 실크로드 전략이다.

리웨이 란저우 신구(新區) 당공위원회 서기는 축사에서 “란저우 신구는 서북지역 산업 중심이고 교통 허브로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양 지역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유럽행 철도의 중심지인 간쑤성 란저우에서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접목-교통과 물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1세션과 ‘중국 서북부지역 산업발전과 한중 산업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2세션에서 중국 란저우대학 경제학원의 장인인 부원장은 “뉴노멀시대에서 한·중 양국은 신에너지, 바이오제약·헬스케어, 농산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업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신성장산업에서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 2) 중국 언론

### ① "中韩产业合作论坛"召开 韩国企业期待扩大投资

2016年08月06日 08:52:26

来源：兰州晚报 ([http://www.gs.xinhuanet.com/news/2016-08/06/c\\_1119346268.htm](http://www.gs.xinhuanet.com/news/2016-08/06/c_1119346268.htm))

原标题：“中韩产业合作论坛”召开 韩国企业期待在兰州新区扩大投资

8月5日，由兰州市人民政府、韩国经济人文社会研究会主办，兰州新区管委会、甘肃省社会科学院、韩国产业研究院（KIET）承办的中韩产业合作论坛在兰州市举行。与会人员围绕“一带一路”和“欧亚倡议”产业合作、中国西部地区产业发展和韩国产业合作发展等主题发表了演讲。

市委常委、新区党工委书记、管委会主任李睿，韩国产业研究院院长俞炳圭分别致辞。副市长、新区管委会副主任牛向东，管委会副任何静，以及部分韩国企业代表等参加论坛。

李睿在致辞中说，随着国家“一带一路”战略的深入推进，兰州新区已从内陆腹地走向开放前沿，产业集聚发展初见规模，对外经贸合作蓬勃兴起，吸引着国内外众多企业前来洽谈合作、投资兴业。我国实施的“一带一路”战略和韩国推广的“欧亚倡议”，为两国深化合作提供了机遇。兰州新区将支持本地企业与韩国企业互利合作，不断深化精细化工、装备制造、电子信息、现代农业等方面的务实合作，努力打造国际产业合作的新典范。同时，希望通过本次论坛，增进双方共识，促进人文交流，推动两地关系向更宽领域、更深层次迈进，更好地惠及两地人民。

“韩国企业对甘肃及兰州的发展关注度越来越高。”俞炳圭表示，韩国企业对上海浦东新区有深入的了解，兰州新区是中国第五个国家级新区，相信能够实现规模化发展。韩国企业期待在兰州新区可以扩大投资和贸易规模。兰州是连接欧亚地区的焦点，是一个交通和物流的枢纽，韩国和兰州市能够基于地理优势找到新的经济发展结合点，实现共同发展。

论坛中，省发改委副主任曹天民、韩国交通研究院副研究员徐琮垣、兰州大学经济学院副院长姜安印、韩国产业研究院主力产业研究室主任赵哲分别作了主旨演讲。大家认为，中国“一带一路”战略与韩国“欧亚倡议”构想间的合作前景广阔。其核心目标都是通过打造欧亚大陆经济圈，在形成新的增长动力区域的同时，营造人文社会交流活跃、和平合作的国际环境。“一带一路”战略不仅给中国带来发展机遇，也会为韩国乃至全世界带来机遇。中韩两国企业可以摸索共同参与“一带一路”重大项目建设，实现共赢发展。

当天，还举行了中韩企业推介，省社科院与韩国产业研究院签订战略合作协议，中国能源和矿产丝绸之路经济带投资公司与韩国金星神秘化妆品公司进行了项目签约。（首席记者郭兰英）

## ② 兰州举行“一带一路”中韩产业合作论坛

2016-08-09 05:41

来源：每日甘肃网-甘肃日报(<http://news.163.com/16/0809/05/BU0M88N600014AEE.html>)

记者 刘健

每日甘肃网兰州8月9日讯(甘肃日报记者刘健)8月5日上午,由兰州市政府、韩国经济人文社会研究会主办的“一带一路”中韩产业合作论坛在兰州举行。来自韩国的60多名企业家、专家及有关部门负责人参加论坛,就推动“一带一路”建设,加强与兰州新区的经贸合作进行了深入交流。

作为我国向西开放的重要战略平台,兰州新区区位优势明显,对外交通便捷,是丝绸之路经济带上的重要节点。随着国家“一带一路”战略的深入推进,兰州新区已从内陆腹地走向开放前沿,吸引着国内外众多企业前来洽谈合作、投资兴业。

此次论坛上,围绕“一带一路”建设,双方从多个方面就促进合作、共同开创互惠双赢新局面进行了探讨与交流,并举行了重点企业推介和项目签约。